

동정



이응우 계룡시장은 10일 오전 11시 시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3분기 계룡시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석한다.



금산군 중도·하옥 도시재생사업 아름다운 골목길. (사진=금산군 제공)

금산군 중도·하옥 도시재생 '아름다운 골목길' 경관개선

금산군은 중도·하옥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금산읍 건삼전길 일대 골목 7개 구간의 아름다운 골목길 만들기 경관개선에 나섰다.

이 사업은 통일감 있는 색채로 외벽을 정비했으며 지역 내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인삼과 관련된 이야기를 활용해 사진을 전시하는 등 각기 다른 콘셉트를 담았다.

또, 스토리 안내판을 통해 각 골목의 구간별 위치와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골목 구석구석에 숨겨진 23개의 조그만 벽화를 찾아보는 숨은그림찾기로 색다른 즐거움을 경험해 볼 수 있다.

박법민 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조성된 골목들이 지역의 관광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것을 기대한다"며 "주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산/박수찬 기자 psc9905@dailycc.net

계룡시, 학생 이동 결핵 검진 실시간 원격 판독 결과 확인

계룡시는 지역 학생들의 건강 보호와 결핵 조기 발견을 위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학생 결핵검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진은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와 연계해 추진하며 관내 3개 중학교 2, 3학년 1200명 재학생 대상으로 이동식 흉부 X-선 장비를 이용해 촬영하고 실시간 원격 판독을 통해 결과를 확인한다.

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된 학생은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결핵 확진 시 정기적인 진료와 복약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결핵은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우리나라에서 지난 2024년 국내 결핵환자는 1만7944명(35.2명/10만명)이 발생해 전년 대비 8.2%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결핵 발생률이 2023년 OECD 가입국 중 2위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청년층은 활동량이 많아 감염 확산 위험이 높아 조기 발견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학생 결핵 검진은 잠재적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고 학교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계룡/장인평 기자 jip309@dailycc.net

— 지사안내 —

- 논산 010-8785-6673
계룡 042)841-0303
금산 041)751-1213

충남의 매력·K-유교문화 세계에 알린다

12일 해외 협약·교류기관 대표 참석 '유교문화 국제교류의 날' 논산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일원 개최 '한국유교문화축전' 연계

충남도도와 논산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하 한유진)이 주관하는 '2025 유교문화 국제교류의 날' 행사가 오는 12일 세종시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과 논산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2025-2026 충남방문의 해'와 연계한 '2025 한국유교문화축전'의 핵심 국제 프로그램으로, 충남이 가진 문화적 매력을 세계에 알리고 유교문화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일환이다.

국제교류의 날은 올해 처음 개최되는 행사로 '한국유교문화, 세계를 잇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중국, 베트남, 독일, 일본 등 해외 협약 및 교류기관 대표와 학계 인사 등 50여 명이 참석해 오전 9시부터 스카 기관 소개 △지속가능한 교류 방안 △유교문화의 세계적 가치 확산 전략 등을 발표하고 대화를 통해 협력 방향을 모색하며, 한국 대학유학연구소협의회 등 국내 학자들도 함께 참여해 담론을 확장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공자(孔子)의 79대 적장손 공주이장(孔垂長, 지성공 자기교회 회장)이 방한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이에, 중국에서는 허베이성사회과학원, 공자연구원, 맹자연구원, 산둥사범대 한국학연구소가 참석하고 베트남에서는 사회과학원립원의 철학원과 한남연구원, 독일의 튀빙겐대 한국학 연구소와 일본의 동일본국제대학 등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연구기관 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글로벌 협력

의 의지를 다짐 예정이다.
오후에는 충남 논산으로 이동해 '2025 한국유교문화축전' 개막식에 함께 한다. 이어 국제교류 리셉션을 통해 각국 참가자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유교문화'라는 공통의 가치를 나누며, K-유교문화를 느끼는 교류의 상징적인 자리가 될 예정이다.

한유진 정재근 원장은 "이번 '2025 유교문화 국제교류의 날'은 공자 종손을 비롯한 세계 각국 유교문화 관련 기관장들이 모여 교류와 결실, 화목을 다지는 큰 의미가 있다"며, "충남방문의 해와 더불어 충남의 유교문화, K-유교문화가 세계 속에서 더욱 빛날 수 있도록 국제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앞서 중국 공자연구원과 대학유학연구소협의회와의 업무협약식도 예정되어 있다.

한유진은 두 기관과 함께 △유교문화 진흥을 위한 연구 협력 △학술정보 및 출판물 교류 △유교문화 콘텐츠 개발 △관련 행사 공동 개최 △시설물 상호 이용 협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유교문화 국제교류의 날 행사가 연계된 '2025 한국유교문화축전'은 참여형 문화축제로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충남도 논산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논산/백대현 기자 no454@dailycc.net

'부여 별밤 콘서트' 대한민국 대표 가수 총출동

조성모·소찬휘·박완규 등... 내달 6일 백제문화단지서 공연

부여군은 오는 10월 6일 추석 당일 오후 7시 백제문화단지 주무대에서 KBS와 함께하는 특별 기획 공연 '부여의 별밤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한가위를 맞아 전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특별한 무대로 마련된다. 가족, 연인, 친구가 함께하는 가을밤의 낭만적인 공연으로, 한가위 보름 달빛 아래에서 펼쳐지는 환상적인 음악 축제가 펼쳐진다.

달빛과 별빛이 어우러진 백제문화단지의 야경 속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들이 총출동해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다.

출연진은 △발라드의 황제 조성모 △폭발적인 가창력의 디바 소찬휘 △영혼을 울리는 특의 전설 박완규 △무대를 빛내는 댄싱퀸 채연 △추억의 명곡과 감동의 무대 K2(김종민) △감성



KBS와 함께하는 부여의 별밤 콘서트 안내. (사진=부여군 제공)

보컬리스트 박기영 등 시대를 아우르는 최고의 음악가들로 구성됐다.

또한, 공연의 대미에는 가을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불꽃놀이가 준비

돼 있어 관객들에게 더욱 특별한 감동을 더 한다.

한편, 제7회 백제문화제는 "아름다운 백제, 빛나는 사비"를 주제로 오는 10월 3일부터 10월 12일까지 추석 황금연휴를 포함한 10일간 부여군 일원(백제문화단지, 구드래, 시가지 등)에서 성대하게 개최된다.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공연·행렬이 마련돼 가을 여행객과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추석 보름 달빛 아래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며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한가위에 무엇을 할지 아직 고민이라면 가족과 함께하는 이번 콘서트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시길 권한다"라고 전했다.

부여/이기대 기자 lg21004@dailycc.net

인삼칩 등 간편 인삼약초요리 7종 개발

금산세계인삼축제서 시식

금산군은 인삼 소비 촉진을 위해 간편 인삼약초요리 7종을 개발했다.

이 요리는 오는 19일부터 열흘간 열리는 제43회 금산세계인삼축제의 인삼약초요리 만들어 먹기 체험행사 코너를 통해 참여자가 직접 만들어보고 시식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특히, '애들아, 사랑한다' 주제로 열리는 축제에서 어린이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리를 선보이는 데 집중했다.

이번 요리개발에 우리음식연구회가 참여했으며 구슬떡꼬치, 사과인삼찜, 푼토리김밥, 인삼칩, 부꾸미, 아이스크림, 인삼카나페 등 7개 메뉴가 결정됐다.



간편 인삼약초요리. (사진=금산군 제공)

군 관계자는 "인삼요리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라며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새로운 미식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인삼요리에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인삼약초 요리의 대중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산/박수찬 기자 psc9905@dailycc.net

논산지역자활센터, 올 성과평가 '최우수'

취·창업 등 전반 높은 평가

논산시는 논산지역자활센터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실시한 '2025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에서 전국 최상위 등급인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국 228개 지역자활센터 중 최우수기관은 단 25곳에 불과해 논산지역자활센터의 뛰어난 성과를 입증했다.

논산지역자활센터는 △참여자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와 취·창업 성과 창출 △안전적인 자활사업단 운영 △자활기업 성장 지원 및 활성화 △체계적

인 센터 운영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 지표 전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라 논산지역자활센터는 재정 특전 200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이를 센터 운영과 종사자 처우 개선에 활용해 자활사업의 질을 한층 더 높인다는 방안이다.

시 관계자는 "최우수기관 선정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 내 취약계층의 자립·자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해 참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자활사업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논산/백대현 기자 no454@dailycc.net

계룡시, 주택 내 상수도 급수관 세척 지원

비용 80% 최대 25만원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계룡시는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상수도 옥내급수관 세척 지원사업'을 하반기에도 이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상반기 동안 총 4000만원의 예산으로 205세대에 대한 급수관 세척을 지원했으며 높은 시민 호응 속에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추가로 800만원을 확보해 하반기 지원을 재개한다.

이번 추가 접수는 9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 접수를 받는다.

해당 사업은 주택 내 급수관 세척을 희망하는 세대에 대해 최대 25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세척 비용의 80%를 시가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신청

세대가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계룡시청 상하수도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세척 완료 후 비용의 80%를 정산 방식으로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 예산으로 약 40세대 내외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 상하수도과 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응우 시장은 "올해 상반기에 시행한 상수도 급수관 세척지원 사업이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조기에 마감됨에 따라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며 "수돗물 공급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계룡시는 충남도 15개 시·군 중 최초로 '상수도 옥내 급수관 세척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부터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계룡/장인평 기자 jip309@dailycc.net

계룡-성남 자매결연... "관광, 문화·예술, 청년 교류"

상호발전 협력 기반 마련

계룡시와 경기도 성남시가 지난 8일 성남시청에서 우호 교류 증진과 상호발전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 지자체는 △4차 산업과 신성장 동력 사업 육성 협력 △예술·축제·공연 등 시민 여가문화 증대와 관광자원 활성화 △행정 우수 시책 정보 교환 △지역별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홍보 △청년·청소년·교육·체육 등 분야에서 민간교류 촉진에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향후 실무협의 등을 통해 마련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두 도시가 서로의 강점을 살려 관광,



계룡시와 경기도 성남시가 지난 8일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계룡시 제공)

문화·예술, 청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지역 발전을 이뤘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응우 시장은 "3군 본부가 위치한 국방의 중심도시, 계룡산과 사계고택

등 지역이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다양한 민간교류를 추진하고 정보교환 및 벤치마킹 등 지속적인 실질적인 상호교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계룡/장인평 기자 jip309@dailycc.net

부여 황양순 씨, 전국 성인 문해교육 시화전시 '글아름상'

작품 '어머니 용서하세요'

부여군은 부여군 평생학습관에서 문해교육을 통해 배움의 기쁨을 알아가고 있는 황양순(76) 씨가 2025년 전국 성인 문해교육 시화전에서 '어머니 용서하세요'라는 작품으로 글아름상(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늦은 나이에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삶의 진솔한 이야기를 글로 표현한 어르신의 값진 성과이자, 부여군 평생학습의 저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어머니 용서하세요'라는 작품은 어르신이 젊은 시절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어머니에 대한 깊은 사랑과 뒤늦은 후회,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애절한 마음을 담아낸 시화 작품으로 서툰 글씨와 그림이지만, 그 안

에 담긴 진심은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황양순 씨는 "평생 글을 모르고 살았는데, 평생학습관에서 한글을 배우면서 내 마음속 이야기를 글로 쓸 수 있게 되어 꿈만 같다"라며, "이 나이에 상까지 받게 되어 너무 기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배우서 더 많은 이야기를 쓰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부여/이기대 기자 lg21004@dailycc.net